인 사 말

이 병 훈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2년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회장으로 봉사하게 된 이병훈 교수입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 활동은 우리의 생활 패턴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대면의 일상은 우리를 가끔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 학회회원 여러분들은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소원성취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제 임기중 임원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몇 가지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위생안전성 연구의 수월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와 이에대한 과학적 해결의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다 활발한 학문교류와 정보확산 등을 통해 우리 학회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술지의 세계화를 지향하겠습니다. 학술지는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소통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학술지의 수준은 그 학회의 수준을 대변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학술지의 발전이 학회의 수준 향상과 회원의 연구력 증진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술지 발전을 위한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학회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미 IAFP와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상생발전 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도 협력하여 우리 학회의 대내외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창립된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식품안전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고의 학회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과학기술과 정책 발전에 기여 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업적에 묵묵히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한 해 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한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